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최근 유가 상승세와 연내 전망
제조서비스플랫폼 동향과 시사점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최근 유가 상승세와 연내 전망	1
제조서비스플랫폼 동향과 시사점	5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8
--------------------	---

최근 유가 상승세와 연내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강명구 (mgk101@kdb.co.kr)

- ◆ 최근 유가가 OPEC+의 감산량(690만배럴/일) 동결 합의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각국의 경기부양 시행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 등으로 년초 대비 급등
- ◆ '21년 연간으로는 코로나19 진정국면 진입, 미국 및 OECD의 재고량 감소 등 수요 증가 요인에도, 러시아의 감산 거부 가능성 등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으로 유가 강세 기조가 제한적일 전망

□ '21년 들어 계속된 OPEC+의 감산량 동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에 따른 향후 유류 수요 증가 기대감 등으로 최근 유가가 급등

- '20년 중반 이후 배럴당 미화 40달러 내외를 줄곧 횡보하던 유가(WTI)가 지난 3.5일 OPEC+*의 감산량 동결 합의 이후 61.56달러를 기록하며 '21년초 47.62달러 대비 29.3% 급등
 - * OPEC+는 OPEC 회원국과 비회원 산유국 10개 나라(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멕시코, 오만, 수단, 남수단)로 구성
 - 이는 배럴당 66.3달러를 기록한 '19.4월말 이후 최고가 수준에 해당
 - 코로나19 발발 이후로는 배럴당 11.57('20.4.2일) → 47.62('21.1.4일) → 61.56('21.3.22일) 달러로 상승
 - 3.5일 OPEC+ 회의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대해선 4월 적정수준(modest)의 증산을 허용하고 나머지 회원국에는 산유량 동결 결정(〈부록 1〉 참조)
 - OPEC+는 러시아 13만배럴/일, 카자흐스탄 2만배럴/일 증산을 허용하고, 사우디는 '21.4월말까지 자발적으로 100만배럴/일 감산을 지속하기로 결정
 - * OPEC+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20.5월부터 산유량 감축에 돌입하였으며, '20.5~7월까지 산유량 970만배럴/일, 이후 '20년 말까지 770만배럴/일을 감축하였고, '21.1월부터는 감산쿼터를 720만배럴/일로 소폭 완화. 4월부터 50만배럴/일 추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감산량 동결기로 합의
- '21년 들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데다 각국의 경기 부양에 따른 경제성장률 회복 기대감으로 유류 수요가 빠른 회복세
 - 특히, 전세계 수요량의 15.7%를 차지하는 중국의 '21.1분기 원유 수요가 14.92백만 배럴/일로 '20년 동기 대비 8.2% 증가하여 유가 상승을 주도(EIA, '21.3월 전망치)



□ '21년 연간으로는 코로나19 진정세, 세계 각국 재고량 감소 등 수요 증가 요인에도,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으로 유가 강세기조가 제한적일 전망

- '21년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팬데믹 진정국면 진입으로 초국경간 자유 이동 폭이 늘어나고 경제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원유 수요 증가 추산
 - * OECD는 3.9일 '2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5.6%로 +1.4%p 상향(4.2 → 5.6%)
 - '21년 전세계 원유 수요는 97.1백만배럴/일로 '20년 대비 3.1%(2.9백만배럴/일) 증가 전망(EIA, '21.3월 전망치)
 -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 회복이 유가를 강하게 지지할 가능성
 - 세계 원유 수요 2위국인 중국의 '21년 원유 수요 증가분이 세계 원유 수요 증가분의 28.3%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일본 제외) 수요 증가분이 64.8%에 이를 것으로 추정(EIA, '21.3월 전망치)
- 수급 불균형에 따른 미국 및 OECD의 상업적 재고 감소 전망
 - 위 OPEC+의 움직임과 함께 코로나19 방역비율 증대 및 일상 회복 시도 강화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와 각국 재고량 감소로 향후에도 일정기간 수요초과 상태가 지속될 우려
 - 미국의 원유 수요(백만배럴/일) : 20.44('19.12)→18.80('20.12)→19.91('21.12E)
 - 미국의 원유 재고량(백만배럴) : 1,282('19.12)→1,344('20.3)→1,269('21.12E)

미국과 중국의 원유 수요



자료 :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Mar. 2021

미국 원유 재고량



자료 :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Mar. 2021

- 공급측면으로는 '21년 하반기에도 OPEC+가 유가 상승세 지지를 위해 3월 합의한 원유 감산 규모를 유지하고, 사우디 역시 자발적 감축 의지를 연장해갈 전망
 - 특히, 사우디는 유가를 자국의 균형재정유가(Fiscal Breakeven Oil Price)*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원유 감산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 감산 정책을 유지해갈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유가 상승압력이 지속될 전망
 - * 균형재정유가는 원유를 수출하는 산유국 정부가 자국내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는 유가 수준으로, 사우디의 균형재정유가는 80달러/배럴 수준으로 분석('20년 균형재정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76달러/배럴, IMF)

- 다만,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대를 우려하는 러시아가 OPEC+와의 감산 합의를 재고할 수도 있어 유가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
 - 원유 감산 합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미국의 원유 생산점유율 확대로, 러시아는 이와 같은 유가 역학관계를 의식해 자국 균형재정유가 이상에서는 생산량 확대를 주의 깊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의 균형재정유가가 40달러/배럴대임을('20년 브렌트유 기준 42.4달러/배럴) 감안할 때, 현재 유가 수준에서도 러시아는 이미 감산에 소극적일 것으로 업계는 평가

〈부록 1〉

OPEC+ 참여국별 기간별 생산 쿼터

(단위 : 만b/d)

국가	기준생산량 (2018.10월)	'20.5월~7월		'20.8월~12월		'21.1~	
		감산량	생산쿼터	감산량	생산쿼터	감산량	생산쿼터
알제리	105.7	24.1	81.6	19.3	86.4	18.1	87.6
앙골라	152.8	34.8	118	27.9	124.9	26.1	126.7
콩고	32.5	7.4	25.1	5.9	26.6	5.6	26.9
적도기니	12.7	2.9	9.8	2.3	10.4	2.2	10.5
가봉	18.7	4.3	14.4	3.4	15.3	3.2	15.5
이라크	465.3	106.1	359.2	84.9	380.4	79.6	385.7
쿠웨이트	280.9	64.1	216.8	51.2	229.7	48	232.9
나이지리아	182.9	41.7	141.2	33.4	149.5	31.3	151.6
사우디	1,100.0	250.8	849.2	200.7	899.3	188.1	911.9
UAE	316.8	72.2	244.6	57.8	259	54.2	262.6
이란		면제					
리비아		면제					
베네수엘라		면제					
OPEC	2,668.3	608.4	2,059.9	486.8	2,181.50	456.4	2,211.9
아제르바이잔	71.8	16.4	55.4	13.1	58.7	12.9	59.5
바레인	20.5	4.7	15.8	3.7	16.8	3.5	1.7
브루나이	10.2	2.3	7.9	1.9	8.3	1.7	8.5
카자흐스탄	170.9	39	131.9	31.2	139.7	29.2	141.7
말레이시아	59.5	13.6	45.9	10.9	48.6	10.2	49.3
오만	88.3	20.1	68.2	16.1	72.2	15.1	73.2
러시아	1,100.0	250.8	849.2	200.7	899.3	188.1	911.9
수단	7.5	1.7	5.8	1.4	6.1	1.3	6.2
남수단	13	3	10	2.4	10.6	2.2	10.8
비OPEC	1,717.0	361.6	1,355.4	281.4	1,280.3	263.6	1,278.1
(멕시코 제외)	1,541.7	351.6	1,190.1				
OPEC+총계	4,385.3	970	3,415.3	768.2	3,441.8	720	3,490.0
(멕시코 제외)	4,210.0	960	3,250.0				

자료 : Platts, Reuters 등

제조서비스플랫폼 동향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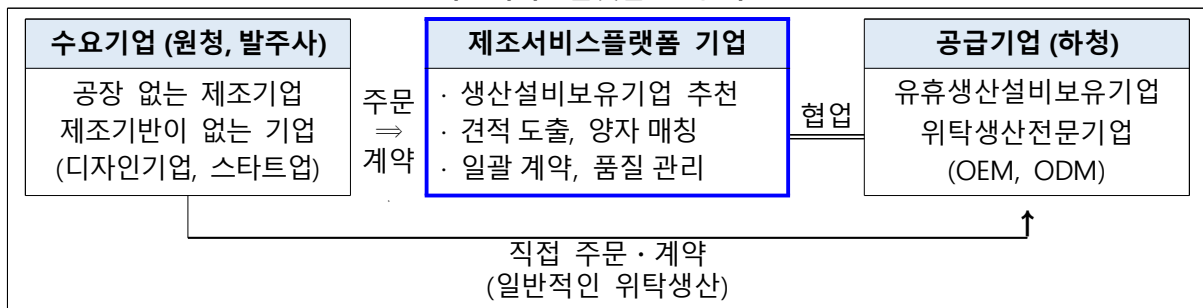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정 환 수 (hsjung@kdb.co.kr)

- ◆ 글로벌 제조업의 新트렌드인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증가에 따라 제조 전문기업과의 연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조서비스플랫폼 기업이 등장
- ◆ ICT 기술을 활용한 제조서비스플랫폼 기업을 육성하여 한정된 경영 자원의 효율화를 통해 공장없는 제조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증가에 따라 제조 전문기업과의 연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서비스플랫폼 기업이 등장

-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생산이 분업화되면서 ‘공장없는 제조기업’이 글로벌 제조업의 新트렌드로 등장
 - 공장없는 제조기업은 부품, 완제품 조립은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설계 등 소프트웨어 역량에 집중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부품의 모듈화 및 표준화, 3D프린팅 등 기술 보급, 제조 전문기업 인프라 확산 등으로 공장없는 제조방식이 점차 증가
- 공장없는 제조기업은 생산·제조 아웃소싱을 위한 제조 전문기업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조서비스플랫폼* 기업 등장
 - * 공장없는 제조기업에게 제조전문기업 매칭-견적산출-납품-결제-배송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플랫폼
 - 제조서비스플랫폼을 통해 대량생산 기반이 아닌 맞춤형 제품 제작을 위해 관련 제조 전문기업 조사, 관리 등에 소비하는 자원 절약 가능

제조서비스플랫폼 운영 구조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1.3),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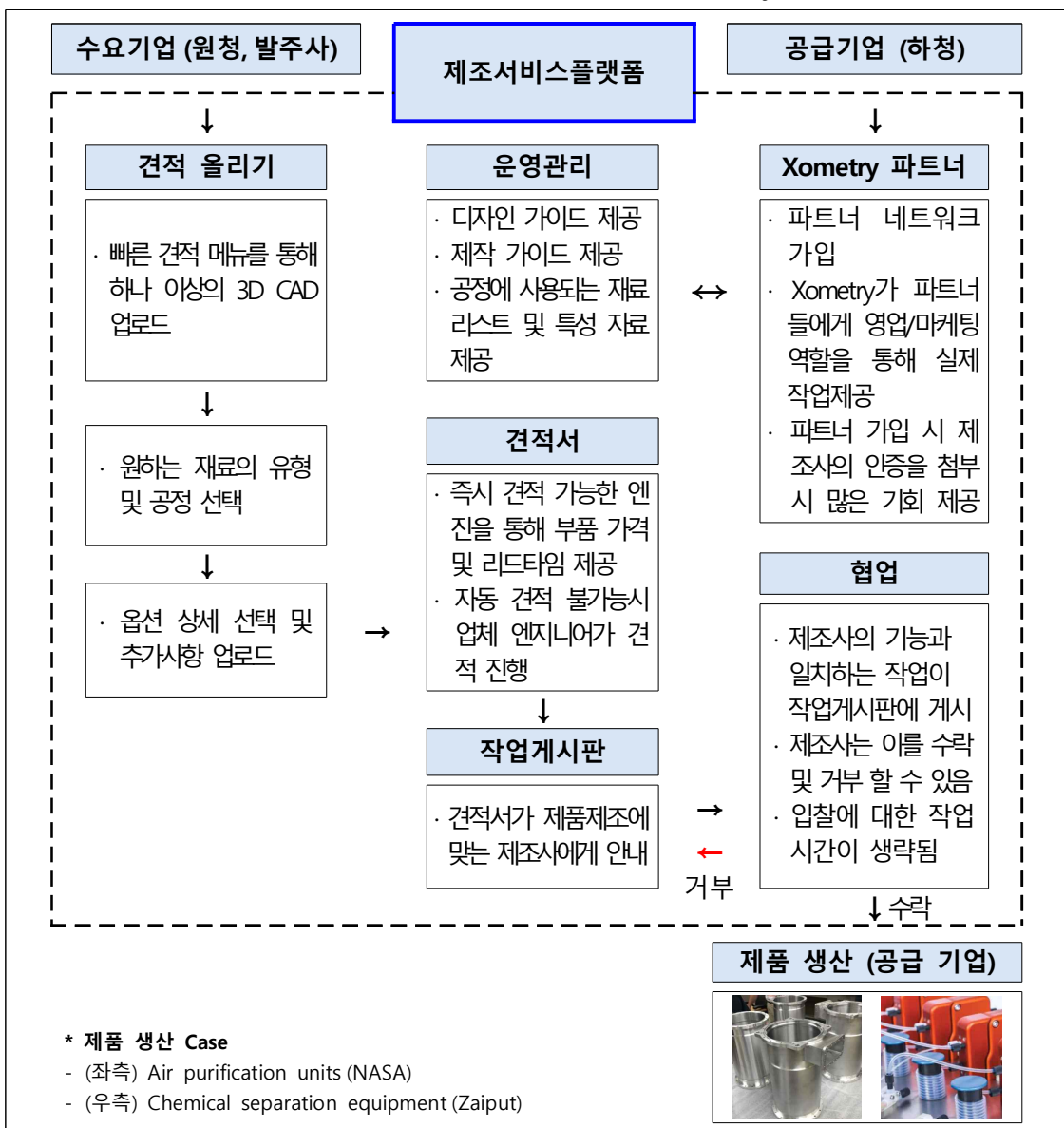
□ 제조서비스플랫폼은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공장없는 제조기업과 제조 전문기업 간 연계 협업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진행

○ 제조서비스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발주사가 견적을 업로드하면 제품 및 공정에 적절한 제조사를 중계하는 시스템

- 제조사 중계 및 견적 업로드 시 공정 분야 서비스(3D프린팅, CNC*가공 등)를 통해 발주사 제품의 3D모델링 및 품질 관리 등을 지원

*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기계조작에 필요한 수치와 부호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 수치 제어 장치에 입력하여 기계를 자동제어

제조서비스플랫폼 구성 및 프로세스 (Xometry, US)



자료 : 기업 홈페이지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18.11), "공장없는 제조기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전략 연구" 재인용

국내·외 제조서비스플랫폼 기업

구분	내용
Xometry(미국)	- 5,000개 이상의 제조업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발주사가 견적을 업로드하면 "즉시 견적 엔진"으로 적합한 제조사와 매칭 진행 - 맞춤형 제작 서비스(CNC Machining, Plastic 3D Printing 등) 운영
MakerHub2.0(국내)	- 해당 분야 제조사 발굴, 매칭 서비스 제공 - PM(Product Manager)서비스를 통해 사업성 진단, 시각화/구체화, 제품 개발기획서 컨설팅 등 시제품 개발 지원
CAPA(국내)	- 국내 400여개 제조 파트너와 제조 견적 비교 프로세스 운영 - CNC가공, 3D프린팅, 금형 사출 가공 서비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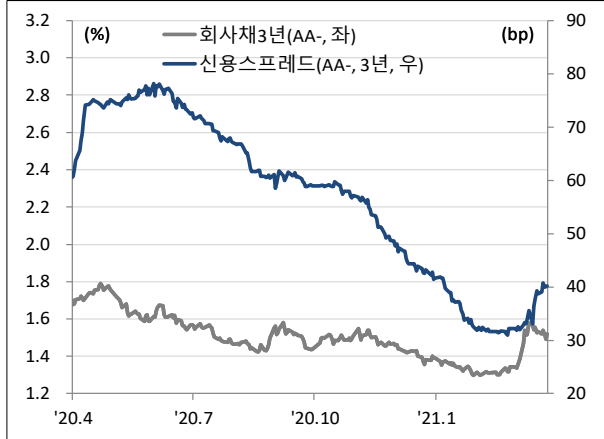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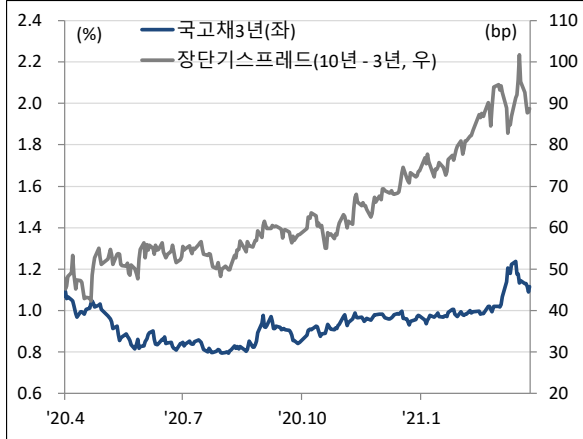
자료 : 각사 홈페이지

□ 제조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을 활성화하여 국내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

- 공장없는 제조기업에 필수적인 제조 전문기업 활용을 위한 인프라 부족*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18.11), "공장없는 제조기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전략 연구" 인용
 - 국내에서는 생산단계별 제조 전문기업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부족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한정된 중소기업의 경영 자원을 효율화하여 공장없는 제조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 제조기술과 품질이 표본화·표준화되면서, 소프트파워에 기반한 창의적 기획·기능 등이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소로 등장
- 정부는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및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 시행 및 활성화 전략 추진 중
 -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신규 제품 생산을 위한 아웃소싱 비용 및 컨설팅 지원
 - 제조 전문기업 역량을 진단하고 DB화하여 플랫폼 기업에 제공하는 스마트 산단 내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확충 등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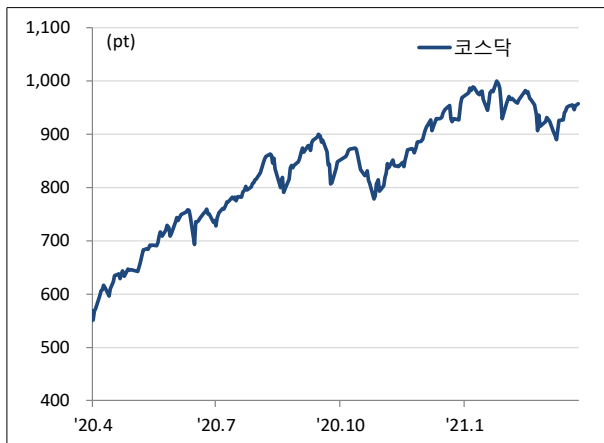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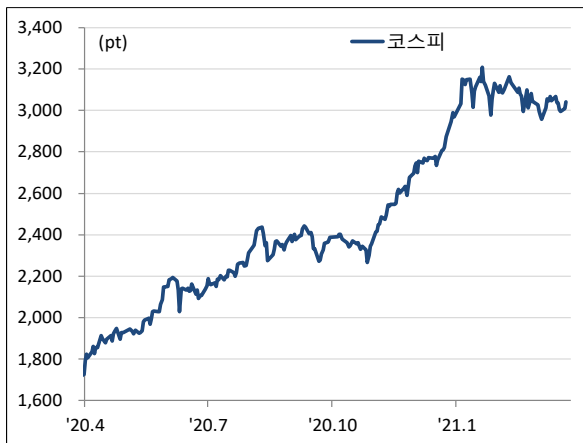
금리 국고채3년 1.117% (2.9bp ↓), 신용스프레드 40.2bp (1.5bp ↑)



환율 원/달러 1,129.3원 (1.3원 ↓), 엔/달러 109.66엔 (0.78엔 ↑)



주가 코스피 3,041.01pt (0.05% ↑), 코스닥지수 956.7pt (0.48%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920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18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